

‘우리나라 최초’ 지하공간개발 전문기업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하다

패스트스타트센터 7월 입주
언더그라운드 주차장 시설
한옥마을등 수도권-지자체 관심
데이터센터 지하 설치 모델
막대한 전기사용 환경문제 해결
지하공간 장점 살린 종합 솔루션
KICT 등 중추기관 기술 협약

지난해 7월 태어난 마스엑스는 신생회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사업이 진행된 상태다.

스타트업 기업을 컨설팅하는 패스트스타트센터에 지난해 7월 입주한 뒤 빠른 속도로 사업을 구제화했다.

지하공간을 개발해 국가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등을 유치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오랫동안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과 준비한 성과였다.

지난해 11월 패스트스타트센터와 사단법인 엔젤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패스트스타트 엔젤투자 데모데이’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시 마스엑스이라는 이름으로 데모데이에 참여한 박우찬(39) 대표이사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하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낸다’는 기업목표와 함께 2가지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도심 주차난을 해결 할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 주차장 시설이다.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의 심각한 주차난을 예로 들며 지하 주차시설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역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었다.

또 전문학적인 냉방시설 비용이 드는 데이터센터를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 모델을 내놓았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

한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큰 고민이다.

구글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이용한 냉각시설이 가능한 해상시설을 검토하는 등 전문학적인 운영비용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

연평균 기온이 9~13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막대한 전기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하공간의 장점을 살려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 모델,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지질 조사와 설계, 건설서비스에 대한 강점도 소개했다.

사업부지 선정에 위해 지질과 암반조사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 만든 분석데이터를 개발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선정된 부지의 지하공간을 3D로 설계하고 이를 VR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차별화된 암반커팅기술을 굴진 공정에 적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하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데모데이 이후 엔젤투자자 그룹의 러브콜을 받았고 수차례의 투자미팅과 투자의향서 교환 끝에 12월 14일 투자유치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마스엑스는 KICT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식회사 실크로드티엔티, 주식회사 수원산업, 주식회사 건설건설 등 국내 지하개발 중추기관기업들과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시장 진출의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수만평 부지의 규석광산 재개발 프로젝트의 시동이 걸린 것이다. 광산부지를 세분화해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컨테이너보관소, 영화촬영소 등 복합비즈니스 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영화촬영소(드라마제작소)는 임점이 확정됐고 나머지 시설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원모지 지하 납골시설과 특수농산물 지하저장센터, 도심지 지하주차장은 관련 기관과 긍정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홍욱기자

지난해 7월 전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패스트스타트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에서 도내 최초로 민간인큐베이터로 지정된 뒤 창업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센터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들은 막연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자신만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가득했다.

이 가운데 오랫동안 아버지가 구상했던 ‘지하공간’ 활용방안으로 사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화제다.

우리나라 최초 지하공간종합개발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마스엑스를 만나본다. /편집지주



박우찬 대표
INTERVIEW

아버지의 지하공간 꿈 “세계 넘어 우주로”

“화성에 인류가 거주할 지하세계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마스엑스의 박우찬 대표는 “인류가 화성에 진출하면 지하가 지상보다 거주환경이 나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스엑스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넘어 우주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표의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아버지의 꿈이었다.

이미 20여년 전 석산을 운영했던 박 대표의 아버지는 지하납골시설에 대한 특허를 등록할 정도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아버지의 지하공간 구축에 대한 상상력과 고민, 노하우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을 구체화 시켰다.

친형인 박병찬(41) 공동대표는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뒤 바로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다. 아버지인 박연근씨는 회사 고문으로 합류하면서 사업은 본격화됐다.

박우찬 대표는 “꿈이 없으면 지하개발을 연구하신 아버지와 한 팀을 이뤄 본격적으로 지하공간개발사업에 진출하게 됐다”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경제성 있고 사회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지하개발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진출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최대 지하물류센터인 Sub Tropolice를 비롯한 유럽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IDC센터 Green Mountain 등을 방문하고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 등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지하공간활용에 뒤쳐진 개발도상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마스엑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 지하공간개발 전문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며 “지하공간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 개인 등에 개발기획, 지질조사, 지하3D(VR)설계, 최신기술의 커팅식굴진, 지하공간특성에 맞는 운영관리시스템구축 등 지하개발 종합 원스톱서비스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욱기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수만평 부지의 규석광산 재개발 프로젝트.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심에

전북중앙신문 LED 전광판 광고가 함께합니다.

전주최적의 위치에서 1일 113회, 월3천4백회 이상 광고송출!! 전북최대의 광고효과

전북중앙신문 LED전광판 광고문의 전화 : 063)230-9100
FAX : 063)287-9800